

전주 발전 ·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 '머리 맞대'

전주시 ·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간담회 가져... 방안 논의 · 기부금 전달 · 애로사항 청취 등 진행

전주시와 바이전주우수업체(회장 전상문)가 강한 경제 전주 구현과 전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임원진들과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 기부금 전달 △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임원진들과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지난 4월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의 수익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온누리안은행에 전달했다.

"우리 회원사들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공 창출 및 제품 개발 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주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전주시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해 우수상품을 인증받은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38개사 52개 품목이 선정돼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우수상품 홍보 간담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시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는 협의회 소속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 표하고, 바이전주우수상품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이날 제시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상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장은 "전주시와 기업의 어려움 및 바이전주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면서



국제로타리3670지구 북전주로타리클럽 제28대 박봉수 회장이 취임했다.

"어려운 이웃 행복 나누는 과정에 의미"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북전주로타리클럽 28대 박봉수 회장 취임

국제로타리3670지구 북전주로타리클럽 제28대 박봉수 회장이 취임했다.

북전주로타리클럽은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이지원 총재, 지구 임원, 제전협의회 및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 28대 회장·임원·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박봉수 회장은

"스테파니 A 얼척 R 회장의 '기적 리클럽 제28대 박봉수 회장이 취임했다. 북전주로타리클럽은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이지원 총재, 지구 임원, 제전협의회 및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 28대 회장·임원·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박봉수 회장은 "스테파니 A 얼척 R 회장의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라는 테마 아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북전주로타리클럽은 장학금 전달, 소외계층 봉사활동, 지역사회 의료물품 전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 성금 1000만원 후원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백승덕)이 올해도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엄마의 밥상'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주)휴비스 전주공장 임직원은 지난 3일 전주시를 방문해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시는 이날 기부된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연간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은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백승덕 (주)휴비스 전주공장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긴급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전주시 완산구, 생계 곤란 가구에 맞춤형 지원

전주시 완산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올해 하반기 잠재적 위기가구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 사유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으로, 대상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위기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구는 공공요금 체납과 단전, 단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해 통한 발굴 및 전주우체국과 협약으로 추진 중인 복지기기 우편사업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집중기로 했다.

또한 구는 긴급지원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사회복지관·병원 등 유관기관 및 통장·자생단체와의 회의 등

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피해 가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 자생단체와 사회복지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구는 장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기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등과 연계해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총 2524건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21억6300만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한 바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잠재적 위기가구를 포함한 복지사각지대가 예방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세계 112개국 350개 창의도시와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는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세계 112개국 350개 도시가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해 큰 퍼런스는 다가올 10년 젊은 세대들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참여도시들은 창의도시 분야별 협력사업 개발 및 향후

서브 네트워크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전 세계적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창의성과 문화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연례회의에서 두 차례 진행된 분야별 워크숍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간 국제협력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각 도시 발전의 상호 이익을 위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전주비빔밥축제 등 '전주 페스타 2024'와 각종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전주에서 진행되는 전주의 다양한 문화사업과 행사와 여행, 식문화를 홍보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부안군
BUAN-GUN

부안군 해수욕장 개장

2024. 7. 5(금) ~ 8. 18(일) / 45일간

부안해수욕장

7. 20 ~ 8. 4

시범 야간개장

모항

격포

변산

고사포

위도